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2025 지역대표 예술단체'를 선정한 가운데 광주·전남 5개 단체가 포함됐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왼쪽)의 지난해 '창단 25주년 기념음악회'를 펼치는 모습, 나주 비상무용단의 무용극 'Spring' 공연 장면.



(광주일보 자료)

지역예술 이끌어 갈 광주·전남 대표 단체는 어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전통연희놀이 연구소', '풍물굿패해원',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비상무용단' 등 지역 5개 공연 단체가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역대 최대의 지원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2025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전국 32개 단체를 선정, 총 194억원(2억~5억·지방비, 국비 각각 40~70% 매칭)을 지원한다.

광주에서는 두 개 단체가 선정됐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억 원, 전통연희놀이연구소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광주여성필)는 서양음악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람스' 곡으로 시리즈 공연(총 6회)을 펼칠 계획이다.

'브람스, 창작의 여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공연은 대공연 4회, 소공연 2회로 구성된다. 광주 예술의전당에서 '고전적 피아노' (4월 15일)를 시작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낭만적 여름' (5월 8일)이 예정돼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하유나와 첼리스트 채훈선과 함께 '자유롭지만 행복한 여름(6월 12일)'도 선보이며 하반기에는 브람스, 쇤베르크 곡을 토대로 '영감의 재해석'을 펼친다.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대표 정재일)는 브랜드 공연 '발광불개' 제작에 중점을 뒀다. 작품은 '태양을 찾아온 불개 설화'와 고구려의 '사신도'를 재구성, 태양의 나라 이야기를 판타지 무언희곡으로 풀어낸다.

정재일 대표는 "발광불개"는 ACC 어린이극장

과 공동 기획했던 '개똥이와 무등산호랑이' 등에 이어 무등산호랑이 연대기 작품이다"며 "신화시대의 판타지를 통해 광주 무등산의 신성성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신화와 전통연희·현대 기술을 융합한 작품으로, 태양의 나라 사람들(연희꾼)이 야광 탈과 의상을 착용하고 LED 족방울, 바나, 농주를 통해 빛고를 광주를 표현한다.

전남에서는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가 10·19 여순사건 아픔을 오페라로 표현한 '바다에 핀 동백'을

무대에 올린다. 위령제 형식의 합창과 정가로 시작하는 공연은 서곡 '바다에 핀 동백', '통곡의 바다'로 채워진다. 이어 평화로운 고장이던 여수 풍광을 묘사한 '평화로운 여수', '잠례와 질성' 대목이 펼쳐질 예정이다.

14연대 군인과 부역자 색출을 위한 진압군의 여수양민 탄압 사건을 그린 장면도 있다. 서초등학교 운동장, 만성리 위령비, 이순신 광장을 모티브로 펼쳐지는 혼성 합창과 아리아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울러 제18회 전국무용제 금상, 안무상을 비롯

해 28회 전국무용제 대통령상, 최우수무용상, 무대예술상을 수상한 나주 비상무용단(대표 박종임)은 K-컬처의 진수를 담아낸 창작공연을 준비 중이다. 발레극 'K-풍류 나주의 전설:청명'은 나주 영산포를 배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랑 이야기를 몸의 언어로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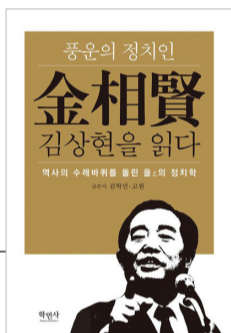
작품은 영산강 황포돛배 선착장(암암바위)에 담긴 '아비사와 아랑사의 전설' 등이 모티브가 됐다.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삼색유산과 배꽃놀이,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한 융복합 레퍼토리도 볼거리다.

이외 2016년 창단 이래 해남에서 활동하는 풍물굿패해원은 전남을 중심으로 '초혼제-기왕지사'인 연 맺은 이 땅이오니', 일본과 중국 해외 순회공연 등 총 76회 상연 실적을 인정받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장성 출신 '후농 김상현' 평전

김학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고원 교수 공동 집필



후농(後農) 김상현(1935-2018)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마당발로 불린 대표 정치인이었다.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정치적 활동은 '승자'에 비견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업적은 기본적인 것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 있다.

후농 김상현의 삶과 생각을 비롯해 정치적 업적 등을 망라한 평전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출간된 '풍운아 정치인 김상현을 읽다' (학민사)는 한 인물의 전기이면서 평전의 성격을 지닌다. 저자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학민 경기아트센터 이사장과 서울과학기술대 기금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 심의관을 지낸 고원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후농 김상현 평전'이 화제에 오르면 왜 그런 책을 쓰느냐는 표정으로 묻는다"면서 "그래서 김상현이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면 '김상현이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호기심을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 출신의 김상현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신문배달 등으로 동생들을 보살피며 야간학교에서 공부했다. 김상현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은 지난 1965년 서울 서대문갑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였다. 이후 김대중 의원의 핵심참모가 돼 1970년 김

대중을 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만, 간발의 차이로 박정희에게 패배한다.

그러나 김상현의 정치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50여 년의 정치 인생 기간 박정희 군사정권,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투옥되고 연금되는 등 오랜 아인생활을 했다. 그럼에도 역사는 김대중을 세계적 인물, 민족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니 김상현의 전략과 직관이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책 부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을(乙)의 정치학'은 후농의 정치 인생을 포괄한다. 무엇보다 정치사를 풍부하게 할 사료적 가치가 다수 담겨 있다. 공식적 기록 외에도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 정치사의 전경, 야당 정치의 풍경을 비롯해 김대중과 김영삼의 알려지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다.

1970년 신민당 전당대회 경선, 1974년 대통령선거, 1984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 결성 뒷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저자들은 인간 김상현의 모습 즉, 심리적 콤플렉스, 인간적 한계, 정치적 전략과 전술의 오류도 비켜가지 않았다.

그러나 책을 쓰며 가슴이 뜨거웠던 지점은 김상현의 삶속에 깃든 '후머니즘'이었다. 집필자들은 "요즘같이 정치가 극단의 대립과 증오, 독설과 편견으로 가득한 시대에 그의 정치적 삶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겨울에 꿈꾸는 초록의 여름풍경

윤연우 기획전, 5~21일 동구 미로센터

한겨울에 만나는 이색적인 여름 풍경. 윤연우 작가의 기획전 '초록세상, 파란마음'은 겨울에 그려보는 여름 휴가 풍경을 담고 있다. 동구 미로센터 1층, 오는 5일부터 21일까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폭설이 내려 세상은 온통 눈 천지였다. 야트막한 산자락이나 빈 궁터에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다.

아직은 추운 겨울이지만 여름 휴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겨울에 상상하는 여름 휴가는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짜릿하다. 여름에는 겨울을 떠올리고, 겨울에는 여름을 상상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터.

이번 전시에서 윤 작가는 자연의 생명력을 모티브로 심상을 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모두 12점의 작품은 그동안 작가가 펼쳐왔던 창작활동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이다.

초록이 무성한 자연의 품에 안긴 사람의 모습은 더 없이 평안하며 안정적이다. 자연이 건네는 위로가 화폭 밖으로까지 느껴진다. 오랫동안 푸른 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편의 마음마저 푸르게 물들 것 같다.

윤연우 작가는 "겨울이지만 자연에서 휴식을 꿈꾸는 여름 풍경을 그렸다"며 "작품을 통해 자연이 건네는 위로와 힐링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초록세상, 파란마음'

전했다.

한편 전시와 맞물려 시민 대상 워크숍(공예작가 한송이)도 열린다. 대나무를 활용하여 달력들을 제작해 보는 시간이다. 문의 미로센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지난 1일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 전문 강사가 교육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하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 신청.

교육은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문제, 스토킹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교

육 기회가 부족했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 단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지원 불가)

특히 올해는 '교제폭력 예방교육'이 신설되면 서 다양한 분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도 불리는 '교제폭력'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교육일 기준으로 최소 14일 전 신청 필수.

재단 김경례 대표이사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교육사업이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변화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